

후기청소년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및 영적 안녕 간의 관계

Relations among Body Shape Percep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piritual Well-being in Late Adolescents

이해영*, 유하나**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 기초과학연구소*,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Haeyoung Lee(hylee@hoseo.edu)*, Hana Yoo(hanay@bible.ac.kr)**

요약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영적 안녕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1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2개 대학교의 학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16명을 임의로 표출하였다.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t-test, Kruskal-Wallis test, Bonferroni correc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94.9%가 체질량지수가 저체중 혹은 정상체중이었지만 현재 보다 더 마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 인식은 성별, 종교 유무, 체중조절 경험 유무, 현재 체질량지수와 원하는 체질량 지수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영적 안녕은 종교 유무와 음주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형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대인관계 문제와 영적 안녕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후기 청소년의 왜곡된 체형 인식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이 있으며, 후기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중재 요소로서 영적 안녕에 대한 영역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후기 청소년 | 체형 인식 | 대인관계 문제 | 영적 안녕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to identify the relations of body shape percep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piritual well-being in late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are 116 late adolescents in S and K city.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12 to November 16, 201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Kruskal-Wallis test, Bonferroni correc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shape perception for gender, religion,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current body mass index, and wanted body mass ind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iritual well-being for experience of drinking and religion. There w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piritual well-being. Conclusions: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will be needed to improve interpersonal problems and abnormal body shape perception and to enhance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ts.

■ keyword : | Late Adolescents | Body Shape Perception | Interpersonal Problems | Spiritual well-being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기본법[1]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속하는 연령 집단은 후기청소년 혹은 청년기로 구분되어 청년과 청소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기가 대[2].

후기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Erikson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신체적 독립을 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3]. Sullivan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청년 초기에 강렬해지기 때문에 만약 청년이 친한 친구를 갖지 못하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가치감이 저하된다고 하였다[3]. 국내에서는 최보아[2]가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정체감을 확립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다.

19세에서 25세의 청년기는 교육의 종료와 직업세계로의 진출과 같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을 하는 시기로 개인의 사회화와 적응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발달의 과도기로 사회적인 성격형성이 필요하며[2], 실제 국내의 경우 고교과정 혹은 대학과정에서 진학이나 취업의 길을 택하면서 자립을 시작하게 되므로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발달과업 중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신체상이 중요하다[4][5]. 신체상은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말하는데[4], 청소년기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능력과 가치,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부모, 또래집단, 학교의 4가지 사회화 요인들을 통해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6].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은 우울의 정도가 심하고, 자아개념이 낮고[7],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으로 이어져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

다[8]. 또, 청소년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자아상실, 불안, 열등감, 우울, 대인관계 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9][10]. 요즘의 대중매체들이 마른 체형, 근육질 몸매에 대한 환상 등을 강조하면, 청소년들은 신체 외형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정상체중인 사람마저도 부정적인 체형인식을 가지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

청소년 외모만족과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7][12][13], 청소년기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확장되고 이를 통해 많은 갈등과 혼란, 불안을 겪기도 하고 만족감을 얻기도 하면서 또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12]. 따라서 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되며, 대인관계 양상에 따라 추후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13]. 또래와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청소년의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등[14][15]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건강의 이슈가 된다.

인간의 발달과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영적 안녕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고 있다. 영적 안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16][17]. 영적안녕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 생명존중, 내적인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보인다[18], 청소년의 경우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영적 안녕을 통해 완화되기도 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9].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적안녕에 대한 연구는 정신 건강과의 관계[17], 자살위험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20],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와의 관계[21], 스트레스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22]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적안녕을 정신적, 정서적 개념의 변수들과 연계하여 탐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왜곡된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의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과 질병을 바르게 이해하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혹은 재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서 생물·심리·사회·영적 모델로의 확장이 요구된다[23].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 체형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간에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추후 후기 청소년기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영적 건강 요구에 대한 건강증진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청소년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와 영적 안녕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후기청소년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의 수준을 확인한다.
- 둘째, 후기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후기청소년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체형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 및 영적 안녕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 소재 1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S와 K시 소재 각각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이며, 해당 고등학교의 선생님에

게 연구자가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학생들에게 연구보조원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연구보조원이 연구 진행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참여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5 program을 이용하여 중간의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선정하였을 때 상관관계 분석에 적합한 표본 수는 111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20%로 고려하여 134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자료 분석에 부적합한 18부를 제외한 11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체형인식

Sørensen 등[24]에 의해 개발되고 김은아[25]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마른 체형부터 뚱뚱한 체형까지 9등급의 체형의 그림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인식하는 현재 자신의 체형과 원하는 자신의 체형의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원하는 체형에서 현재의 체형을 뺀 값에서 '0'은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 값으로 갈수록 살찌기를 원하는 것이며, '-'는 더 마르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종면과 원장원[26]의 연구에서는 본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5($p < .001$)로 보고되었다.

3.2 대인관계 문제

홍상환 등[27]이 개발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제지배(PA), 자기중심성(BC), 냉담(DE), 사회적 억제(F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희생(LM), 과관여(NO)의 8가지 하위영역에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는 대학생에서 .61~.81 범위였고,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68~.7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가 .94였다.

3.3 영적 안녕

Paloutzian과 Ellison[28]이 개발하고 박지아와 유성경[29]이 수정, 보완한 영적 안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두 개 하위 영역에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아와 유성경[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92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으며, PASW Window version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의 차이는 t-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correction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6)

특성	구분	실수(%)
성별	남	36(31.0)
	여	80(69.0)
나이	17~19세	60(51.7)
	20~24세	56(48.3)
	평균±표준편차	19.71±2.05
가족과 동거	유	98(84.5)
	무	18(15.5)
종교	유	72(62.1)
	무	44(37.9)
음주경험	유	45(38.8)
	무	70(60.3)
	무응답	1(0.9)
흡연경험	유	9(7.8)
	무	107(92.2)
체중조절 경험	유	73(62.9)
	무	43(37.1)
체형만족	만족	31(26.7)
	불만족	85(73.3)
현재 체질량지수	저체중	38(32.8)
	정상체중	72(62.1)
	과체중	4(3.4)
	무응답	2(1.7)
	평균±표준편차	21.00±2.37
원하는 체질량지수	저체중	83(71.6)
	정상체중	32(27.6)
	무응답	1(0.9)
	평균±표준편차	18.84±1.79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80명(69.0%)이었으며, 17~19세가 60명(51.7%), 20~24세가 56명(48.3%)으로 평균 나이는 19.71세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98명(84.5%)이 가족과 동거하였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2명(62.1%)이었다.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5명(38.8%)이었고,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명(7.8%)이었다. 대상자의 73명(62.9%)이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85명(73.3%)이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현재 체질량지수는 평균 21.00이었고, 110명(94.9%)이 정상 혹은 저체중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체질량지수는 평균 18.84로 저체중이 83명(71.6%), 정상체중이 32명(27.6%)로 연구대상자가 정상 혹은 정상 이하의 체질량 지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정도

연구대상자의 체형 인식 수준의 범위는 -4에서 2이었고, 평균은 -1.00인데, 이는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한 단계 정도 마른 체형을 원함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문제는 평균 92.89점이었고, 자기희생 영역에서 평균 14.44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중심성 영역에서 평균 9.66점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의 평균값은 83.22이었으며, 실존적 안녕이 45.27점, 종교적 안녕이 37.55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의 정도 (N=116)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체형 인식	-4	2	-1.00±1.22
대인관계 문제	46	145	92.89±20.05
통제지배	5	18	10.23±2.69
자기중심성	5	20	9.66±3.13
냉담	5	20	10.84±3.70
사회적억제	5	23	11.32±3.85
비주장성	5	24	11.84±4.20
과순응성	5	22	12.34±3.79
자기희생	5	24	14.44±3.56
과관여	5	20	12.21±3.02
영적 안녕	45	120	83.22±17.74
실존적 안녕	23	60	45.27±7.59
종교적 안녕	10	60	37.95±13.6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체형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더 마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100, p<.001$).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마르길 원하는 것으로 ($t=-2.430, p=.017$),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마르길 원했다($t=-3.661, p<.001$).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더 마르길 원하는 것으로 ($t=3.429, p=.001$) 나타났다.

또한 현재 체질량지수를 과체중, 정상체중, 저체중으로 구분하였을 때 세 그룹 간 표본수의 차이가 크고, 표본수가 적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기에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고, Bonferroni Correction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현재 체질량지수에 따라 체형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 15.324, p<.001$), 과체중, 정상체중인 경우 저체중보다 유의하게 더 마르길 원했다. 원하는 체질량지수가 저체중인 그룹이 정상체중인 그룹에 비해 더 마르길 원하는 것으로($t=-4.268, p<.001$)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대인관계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

(N=116)

특성	구분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M±SD	t or χ^2 (p)	M±SD	t or χ^2 (p)	M±SD	t or χ^2 (p)	
성별	남	-0.22±1.22	5.100(<.001)	88.58±23.11	-1.561(.121)	79.50±18.03	-1.522(.131)	
	여	-1.35±1.04		94.83±18.33		84.89±17.47		
연령	17~19세	-0.92±1.37	.763(.447)	94.57±21.74	.933(.353)	81.45±17.30	-1.111(.269)	
	20~24세	-1.09±1.03		91.09±18.07		85.11±18.17		
종교	유	-1.22±1.06	-2.430(.017)	92.07±18.99	-.561(.576)	91.99±14.75	8.779(<.001)	
	무	-0.64±1.37		94.23±21.83		68.86±11.96		
음주경험	유	-0.76±1.17	1.736(.085)	89.36±20.92	-1.432(.155)	78.87±15.59	-2.323(.022)	
	무	-1.16±1.24		94.80±19.23		86.50±18.15		
체중조절 경험	유	-1.30±1.08	-3.661(<.001)	91.81±19.28	-.754(.452)	82.08±15.56	-.830(.409)	
	무	-0.49±1.28		94.72±21.39		85.14±20.99		
체형만족	만족	-0.39±0.84	3.429(.001)	89.32±23.39	-1.159(.249)	84.81±19.09	.582(.562)	
	불만족	-1.22±1.26		94.19±18.67		82.64±17.31		
현재 체질량지수	저체중	-0.37±1.34 a	15.324(<.001)	93.82±19.37	.959(.619)	79.74±17.54	1.979(.372)	
	정상체중	-1.24±0.99 b		a)b (.001)		92.86±21.12		85.13±17.92
	과체중	-2.25±1.26 c		a)c (.006)		86.75±6.65		85.00±19.24
원하는 체질량지수	저체중	-1.29±1.16	-4.268(<.001)	93.31±20.20	.570(.570)	84.20±16.78	.832(.407)	
	정상체중	-0.28±1.05		90.94±19.59		81.13±20.21		

Analyzed by t-test, Kruskal-Wallis test, a, b, c,=Post-Hoc by Bonferroni Correction

영적 안녕의 경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영적안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8.779$, $p<.001$), 음주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영적안녕이 유의하게 높았다($t=-2.323$, $p=.022$)[표 3].

4. 대상자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및 영적 안녕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체형 인식은 대인관계 문제($r=-.056$, $p=.548$)와 영적 안녕($r=-.087$, $p=.35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인관계 문제와 영적 안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55$, $p=.006$).

표 4. 연구 대상자의 체형 인식,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간의 상관관계 (N=116)

	대인관계 문제 $r(p)$	영적 안녕 $r(p)$
체형 인식	-.056(.548)	-.087(.355)
대인관계 문제		-.255(.006)

IV. 논의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자기 체형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 영적 안녕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 향후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적, 영적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체질량지수가 과체중인 경우가 3.4%이었고, 정상 62.1%, 저체중이 32.8%로 94.9%의 대상자가 정상 혹은 저체중에 속하는 체질량지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하는 체질량지수는 자신의 체형보다 평균적으로 약 한 단계정도 더 마른 체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제 6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연구[10]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실제 저체중군의 29.2%가 정상체중, 혹은 과체중으

로 인식하였고, 정상체중군의 44.5%가 과체중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마르길 원했는데, 이윤 등[30]의 연구에서도 저체중군의 3.2%, 정상체중군의 43.6%의 여학생이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61.4%의 여학생이 이상적인 여자의 체형으로 마른체형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는 대상자의 93.7%가 정상 혹은 이하의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형보다 더 살찐 편이거나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하는 체질량지수가 $17.2\text{kg}/\text{m}^2$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계속해서 청소년의 체형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경우, 체형에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경우, 현재 체질량지수가 과체중, 정상체중인 경우 저체중에 비해 유의하게 마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 일, 중 4개국 청소년의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31]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이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미국 여학생에 비해 2배 이상 체중감량을 위한 시도를 하였고, 한국 여학생의 81.4%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자기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한 KIIP-SC 도구는 개발될 당시의 1460명의 대학생에서는 평균점수가 58점이었는데 [27], 본 연구에서는 20~24세의 경우 91점, 17~19세의 경우 94점으로 전체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92점으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체형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는 외모를 통해 상대의 인상을 평가하고 매력적인 외모로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또래와의 대인관계에 중요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32],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는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13]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금룡[33]은 청소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들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대인관계와 체형인식과 관련하여 청소년 시기 별로 비교하는 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형인식 도구는 두 문항으로 구성된 체형 불만족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체형인식을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영적 안녕과 제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종교의 유무와 음주의 유무에 따라 영적 안녕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종교적 안녕은 신과의 관계성의 유지에서 찾아지는 안녕이며, 실존적 안녕은 자신·타인·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 등의 가치인식에서 얻어지는 안녕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와 유사하게 선행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는 경우 영적 안녕이 높게 보고되었다[17][21][29][34]. 음주 경험은 종교나 성별에 따라 외생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확대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과 같은 불건강한 습관들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들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문제와 영적 안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에 있어 스트레스가 높았던 경우 영적 안녕의 낮은 점수를 보임을 의미하나, 영적 안녕이 낮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가 높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선행의 연구에서 영적안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와 내적인 조화를 이루며 영적 안녕이 높은 사람은 생활스트레스, 자살 의도, 우울이 낮은 경향이 있다[19][35][36]. 따라서 후기청소년기의 대인관계 정립에 영적 안녕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추후 청소년기의 영적 안녕을 높이는 교육과 상담 및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2개 지역의

후기청소년으로 제한되었고 편의 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후기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V. 결론

간호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과 접근 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에서는 이런 다측면적인 접근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체형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 문제를 주요 연구변수로 다루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서의 영적 안녕에 대한 탐구를 같이 시도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후기 청소년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련한 중재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대인관계 문제와 영적 안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추후 후기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중재 요소로서 영적 안녕에 대한 탐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http://www.law.go.kr/main.html>
- [2] 최보아, “청년기 생활설계 진단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5호, pp.101-111, 2010.
- [3] 정옥분,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2008.
- [4] 광한병, 구경자, “생활무용 참가가 여성의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pp.407-416, 2010.
- [5] 최은희, 모문희, “일개 지역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1313-1319, 2013.
- [6] M. Featherstone, “Body, image and affect in consumer culture,” *Body and Society*, Vol.16, No.1, pp.193-221, 2010.
- [7] 이경희, *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성*

- 향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8] 강영숙, *대학생들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직업 선택시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9] 주경숙,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김미현,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 체형 인식 및 체중 조절 행동 양상 -제 6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제25권, 제3호, pp.579-589, 2012.
- [11] 강지숙, 김예영, 김미영, 정덕유, “여대생의 신체상, 체질량 지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296-305, 2009.
- [12] 남궁정은,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성의 조절효과*,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13] 이경희, *청소년의 외모관심과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4] 이복희, 유옥순,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유평출판사, 2009.
- [15]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1호, pp.19-38, 2010.
- [16] M. A. Burkhardt,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Vol.3, No.3, pp.69-77, 1989.
- [17] 이화인,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1호, pp.7-15, 2002.
- [18] 유은주, *암환자의 NURSE PRESENCE, 영적 안녕 및 희망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9]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청소년의 자살 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90-199, 2004.
- [20] 김영아, 권영숙, 박경민,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영적 안녕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12-124, 2006.
- [21]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343-349, 2009.
- [22] 김남희,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23] 진검구, 정봉도, 김용환, “생활스트레스, 영적 안녕 및 우울 간의 관계”, 난청과 언어장애, 제23권, 제1호, pp.311-325, 2000.
- [24] T. I. Sørensen, A. J. Stunkard, T. W. Teasdale, and M. W. Higgins, “The accuracy of reports of weight: Children’s recall of their parents weight 15 years earlier,”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and Related Metabolic Disorders*, Vol.7, No.2, pp.115-122, 1983.
- [25] 김은아, *고등학교 여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역학통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26] 배종면, 원장원, “자기기입용 비만도 측정 설문 도구 개발”, 가정의학회지, 제17권, 제5호, pp.332-338, 1996.
- [27]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 (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1권, 제4호, pp.923-940, 2002.
- [28] R. F. Paloutzian and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A. Peplau, D. Perman(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John Wiley & Sones, 1982.
- [29] 박지아, 유성경,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간의 관계”,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제15권, 제4호, pp.765-778, 2003.

- [30] 이윤, 신혜경, 최병민, 은백린, 박상희, 이기형, 신철, “청소년기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실태조사”,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제51권, 제2호, pp.134-144, 2008.
- [31] 최인재, 이기봉,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V: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한·미·일·중 4개국 비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0.
- [32] 강양희, 박성희,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6호, pp.211-218, 2014.
- [33] 이금룡, “외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제11권, pp.1-18, 1998.
- [34] 김경혜, 김경덕, 변혜선, 정복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 자아존중감 및 죽음에 대한 태도”, *중앙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9, 2010.
- [35] 장인순, “일부 지역사회 여성노인의 영적 안녕,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pp.91-98, 2004.
- [36] 서경현, 진경구,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9권, 제2호, pp.333-350, 2004.

유 하 나(Hana Yo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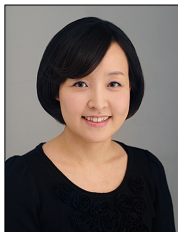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간호, 성장발달, 응급간호

저 자 소 개

이 해 영(Haeyoung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 관리, 교육방법, 중환자